

한국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내용과 경향분석: 1982-2010년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광자¹ · 강윤희² · 구미옥³ · 김경희⁴ · 김옥수¹ · 서연옥⁵
서은영⁶ · 양 수⁷ · 이은현⁸ · 이자형¹ · 최명애⁹ · 하양숙⁹

¹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²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부교수, ³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 교수
⁴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⁵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⁶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⁷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⁸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⁹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Analysis of Trends and Contents of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s in Korea

Lee, Kwang-Ja¹ · Kang, Younhee² · Gu, Mee Ock³ · Kim, Kyunghee⁴ · Kim, Oksoo¹ · Suh, Yeon-Ok⁵ · Suh, Eunyoung⁶
Yang, Soo⁷ · Lee, Eun-Hyun⁸ · Lee, Ja Hyung¹ · Choe, Myoung-Ae⁹ · Hah, Yang Sook⁹

¹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²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³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erontological Health Research Center,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⁴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⁵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⁶E.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⁷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⁸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uwon,
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ontents and trends of Korea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and theoretical characteristics. **Methods:** The design of the study was descriptive study and a total of 1,089 quantitative studies completed between 1982 and 2010 were reviewed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Results:** The majority of studies utilized the experimental design (51.5%) and the others were survey design (38.8%) and methodological design (5.0%). Study subjects were shown as patients (45%), care givers (11.2%), ordinary persons (40.6%) and others (3.2%). There were growing trends in experimental design and patients as subjects. The prevailing data collection settings were hospitals (45.8%) and community (27.8%). The theoretical frameworks that studies were based on were the existing theories (37%) and a newly developed theoretical framework by a researcher (25.2%). a framework derived from other studies by the researcher (25.2%). Majority of studies (78.5%) employed a single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However, 31.8% of studies had no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d the opportunities to shed new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and to deliberate on the future direction of nursing studies in Korea.

Key words: Nursing research, Dissertations, Analysis, Trends, Nursing theory

서론

1. 연구 필요성

학문이 하나의 개별 분과 학문으로서 인정받고 발전해 나가기 위

해서는 그 학문만이 가지는 고유한 지식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간호학자들은 인접한 학문들과 차이를 두고 구별하며 독특한 간호학적 지식체를 개발하고 축적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개발된 지식체는 다양한 견지에서 비판과 논쟁을 통해 새로운 방향과 영역으로 탐구 경향을 찾고 있다(Shin, Sung, Jeong,

주요어: 간호연구, 박사논문, 분석, 경향, 간호이론

*이 연구는 한국간호과학회 정책과제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This research was funded by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Kwang-Ja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882 Fax: +82-2-3277-2850 E-mail: kjlee@ewha.ac.kr

투고일: 2011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12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26일

& Kim, 2008). 학문의 지식체를 발전시키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연구로 인해 지식체가 쌓이고 정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이 만들어지며 그것을 실무에 적용하고 다시 실무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회환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식체의 영역을 넓히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체의 개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이 함께 발전을 해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특성을 가진 학문이 간호과학이다. 간호가 전문직으로서 분과 학문 발달의 출발점이 된 계기는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내 간호교육기관 최초로 대학 학부 과정으로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처음 개설되면서부터였다. 그 후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과정이 개설되고, 1978년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과정 개설로 이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82년 첫 박사학위논문이 출판된 것을 계기로 현재 2010년에는 총 22개교에서 박사학위과정이 활성화되어 간호학 박사가 배출되면서 박사학위논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양적 팽창은 간호과학의 학문 발달 원동력으로서 간호학의 지식을 개발하고 이론을 정립하며 간호 실무에 적용을 하는 과학적 간호의 양적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양적 증가와 함께 단일 분과 학문으로서 탐구 경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평가한 연구들이 있었다. Kim 등 (2004)은 1982년부터 2000년 8월까지 5개 대학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탐구 경향을 고찰한 결과, 간호학이 인간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는데 유용하고, 간호현상을 기술하고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지식체가 생성되었지만, 간호 실무에 대한 대안적인 연계를 찾아내어 간호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후속 연구로 2000년 이후부터 2006년 8월까지 보고된 6개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이전 탐구 경향의 차이와 함께 탐구 대상과 영역을 포함한 탐구 경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간호학 연구에 있어 학문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여 간호 연구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Shin et al., 2008). Spear (2007)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간호박사학위논문 중 연구기준에 맞는 207편을 대상으로 연구와 이론적 접근에 대한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무엇보다도 박사학위논문이 간호이론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 간호이론을 검증하고 수정함으로써 현재 간호지식의 핵심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 연구가 일정 대학의 일정 기간 동안 배출된 연구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Kim et al.; Kim & Lee, 1995; Suh et al., 2007; Shin et al., 2008), 박사학위논문의 경향의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이론을 검증하고 실무

에 적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박사학위논문의 학문적 탐구 경향을 포괄적으로 평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학위 전수논문 중 양적 연구를 대상으로 현황 및 이론적 기틀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박사학위과정 및 학위논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1978년 간호학 박사학위 과정이 생긴 이래 현재 22개 대학교(가톨릭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공주대, 대전대, 동신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에서 개설되어 있는 박사학위과정에서 배출된 박사학위논문의 내용과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양적 연구 방법(연구유형, 연구대상, 자료 수집 장소)을 분석한다.

둘째, 국내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양적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틀, 이론의 적용 유형과 이론의 수를 분류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현황을 분석하여 기술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2010년 2월까지 간호학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된 22개 대학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전체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질적 연구, 논문 검색이 되지 않거나, 외국어로 기술된 논문, 그 외 메타분석, Q 방법론 및 보건학, 교육학 논문을 제외한 총 1,089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박사학위논문 분석기준은 연구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학위논문 분석 연구와 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분석기준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확정된 분석기준은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연구 방법론적 특성 및 사용된

이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연구 방법론적 특성으로는 연구유형, 표본 수, 연구 대상, 연구 수행 장소 등을 분석기준에 포함하였다.

둘째, 사용된 이론의 특성으로는 이론적 기틀 적용 여부, 적용 이론의 수와 이론 적용 유형 등을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단, 이론적 기틀을 적용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만 이론을 사용한 논문과 기존이론을 적용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이론의 수와 이론 적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2010년 2월까지 출판된 박사학위논문을 검색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자료실의 박사학위논문 목록에서 질적 논문을 제외한 양적논문 목록을 조사하였다. 이 목록을 근거로 간호사신문의 학위취득자 및 논문 목록, 국회도서관 및 각 대학의 도서관, 검색엔진을 통하여 확인한 후 총 1,156편의 간호학 전공자의 박사학위논문 대상 목록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목록은 대상 학교에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들이 학위논문분석의 틀과 기준을 이용하여 내용을 정리한 후 연구자들이 다시 검토하여 평가자간 분석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합의한 후 재분석하여 정리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합의된 분석 기준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 중 누락된 자료나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박사학위논문 원본과 코딩한 자료를 비교 및 대조하여 합의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박사학위논문의 일반적 특성

1982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발표된 박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된 전국 총 22개 대학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전수 목록 중 질적 연구, 메타분석, Q 방법론, 논문의 부재로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한문 또는 영어로 쓰여 있어 분석이 불가능한 논문을 제외한 양적 논문 1,089편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연세대가 208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대 146편, 가톨릭대 113편, 이화여대 103편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1,089)

Characteristics	n(%)
Yonsei University	208 (19.1)
Seoul National University	146 (13.4)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13 (10.4)
Ewha Womans University	103 (9.5)
Chung-Ang University	67 (6.2)
Pusan National University	67 (6.2)
Chonnam National University	66 (6.1)
Hanyang University	61 (5.6)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59 (5.4)
Kyung Hee University	56 (5.1)
Korea University	42 (3.9)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1 (2.8)
Keimyung University	28 (2.6)
Kosin University	16 (1.5)
Chosun University	9 (0.8)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 (0.5)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 (0.5)
Dongshin University	4 (0.4)
Daejeon University	2 (0.2)
Soonchunhyang University	1 (0.1)
Total	1,089 (100.0)

2. 박사학위논문의 연구유형

박사학위논문의 연구유형은 총 1,089편중에서 실험연구가 560편(51.5%)였으며, 그 다음이 조사 연구 423편(38.8%), 도구개발연구 55편(5.0%), 기타 51편(4.7%)의 순이었다.

실험연구에서 유사 실험연구가 544편(9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순수 실험연구는 16편(2.9%)이었다(Table 2). 유사 실험연구 중에서도 비동등성대조군 사전사후 설계가 428편(7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계열설계 62편(11.1%),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23편(4.1%), 비동등성 대조군사후 설계 17편(3.0%), 기타 14편(2.5%) 순이었다. 순수 실험연구는 총 16편(2.9%)으로 그 중에서 동등성대조군 사전사후 설계가 10편(1.8%)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연구에서 모형구축연구가 203편(48%)로 가장 많았으며, 서술적 조사 연구 102편(24.1%), 상관관계연구 80편(18.9%), 기타 38편(9.0%)이었다(Table 2).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조사 연구는 1980년대 32편(53.3%)에서 2000년대 302편(37.6%)으로 점차 감소되었으며, 실험연구는 23편(38.3%)에서 2000년대 417편(51.9%)로 증가되었다(Table 2).

Table 2. Research Type

(N=1,089)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1980'	1990'	>2000	
			n (%)	n (%)	n (%)	
Survey design	Descriptive study	102 (9.4)	32 (53.3)	89 (39.6)	302 (37.6)	
	Correlational study	80 (7.3)				
	Developing models	203 (18.6)				
	Others	38 (3.5)				
	Subtotal	423 (38.8)				
Experimental design	True experimental study	ECG pre-posttest design	0 (0.0)	2 (0.9)	14 (1.7)	
		ECG posttest design				2 (0.2)
		Others				4 (0.4)
		Subtotal				16 (1.5)
	Quasi experimental study	NCG pre-posttest design	428 (39.3)	23 (38.3)	104 (46.2)	417 (51.9)
		NCG posttest design	17 (1.6)	23 (38.3)	104 (46.2)	417 (51.9)
		OG pre-posttest design	23 (2.1)			
		Time series design	62 (5.7)			
		Others	14 (1.3)			
		Subtotal	544 (50.0)			
Subtotal	560 (51.5)					
Developing instruments		55 (5.0)	4 (6.7)	15 (6.7)	36 (4.5)	
Others		51 (4.7)	1 (1.7)	15 (6.7)	35 (4.4)	
Total		1,089 (100.0)	60 (5.5)	225 (20.7)	804 (73.8)	

ECG=Equivalent control group; NCG=Nonequivalent control group; OG=One group.

3. 박사학위논문의 연구 대상자

박사학위논문에서 대상자가 환자인 연구는 552편(47.9%), 의학적인 진단이 없는 일반인 연구 455편(39.4%), 돌봄 제공자(care giver)인 연구 131편(11.4%), 기타인 연구 15편(1.3%)이었다(Table 3). 연구 대상자의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환자 중에는 성인 환자인 연구 353편, 노인 환자인 연구 118편, 아동·청소년 환자인 연구 81편, 대상자가 환자인 연구 중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연구는 19편이었다.

일반인 중에서는 성인이 대상자인 연구는 154편, 간호사가 대상자인 연구 91편, 노인이 대상자인 연구 86편, 아동이 대상자인 연구 71편, 일반인의 기타 60편, 간호학생이 대상자인 연구 23편, 직장인이 대상자인 연구 21편, 의사가 대상자인 연구 9편 순이었다. 돌봄 제공자 중에는 가족이 대상자인 연구 74편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가 대상자인 연구 55편, 돌봄 제공자의 기타 11편, 간병인이 대상자인 연구 2편이었다. 기타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중 기타로 26편이 가장 많았으며, 동물과 기관이 대상자인 연구가 각 7편씩이고 환경이 1편이었다.

연대별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80년대 31편(42.5%)에서 2000년 이후 411편(48.7%)로 증가하였으며, 노인대상 연구 편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돌봄 제공자 대상 연구는 1980년대 13편(17.8%)에서 2000년 이후 84편(10.0%)으로 감소하였다. 일반인 대상 연구는 1980년대 29편(39.7%)에서 2000년 이후 337편(40.0%)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어린이와 노인대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간

호사, 간호학생, 직장인 대상 연구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4. 박사학위논문의 자료 수집 장소

자료가 수집된 장소는 병원이 499편(45.8%),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303편(27.8%), 기타 140편(12.9%), 학교 130편(11.9%)이었으며 언급이 없는 것도 17편(1.6%)이었다. 연대별 분포는 자료 수집 장소가 병원인 경우는 1980년대 33편(55.0%)에서 2000년 이후 348편(43.3%)로 점차 감소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료 수집은 11편(18.3%)에서 236편(27.8%)로 점차 증가되고, 학교는 3편(5.0%)에서 107편(13.3%)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Table 4).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병원 중에는 입원병동 210편, 외래 167편, 기타 74편이었고, 입원병동과 외래 모두를 포함한 경우 48편이었다. 기타 중에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병원이라고 써 놓은 50편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재가 95편, 기타 71편, 시설 53편, 보건소 37편, 산업장 23편, 복지관 14편, 경로당 10편 순이었고, 지역사회 기타는 지역사회의 하위영역들이 중복되어 있거나 모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학교 49편, 고등학교 33편, 초등학교 21편, 기타 16편, 중학교 11편 순이었고, 기타의 대부분은 학교의 하위영역들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로 16편 중 11편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기타는 세부 영역들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료 수집 장소가 언급되지 않은 논문은 17편이었다.

Table 3. Research Subjects

(N = 1,089)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1980'	1990'	>2000
			n (%)	n (%)	n (%)
Patients*	Child, adolescents	81 (7.0)	3 (4.1)	18 (7.6)	60 (0.7)
	Adults	353 (30.6)	24 (32.9)	84 (34.2)	245 (29.1)
	Elders	118 (10.2)	4 (5.5)	8 (3.4)	106 (12.6)
	Subtotal	552 (47.9)	31 (42.5)	110 (47.0)	411 (48.7)
Caregivers*	Nurses	55 (4.8)	5 (6.8)	12 (5.1)	38 (4.5)
	Family members	74 (6.4)	8 (11.0)	21 (8.9)	45 (5.3)
	Caregivers	2 (0.2)	0 (0.0)	1 (0.4)	1 (0.1)
	Subtotal	131 (11.4)	13 (17.8)	34 (14.3)	84 (10.0)
Normal persons*	Children	71 (6.1)	3 (4.1)	12 (5.1)	56 (6.6)
	Adults	154 (13.4)	10 (13.7)	34 (14.3)	110 (13.0)
	Elders	86 (7.4)	3 (4.1)	15 (6.3)	68 (8.1)
	Nurses	91 (7.9)	8 (11.0)	18 (7.6)	65 (7.7)
	Nursing students	23 (2.0)	2 (2.7)	4 (1.7)	17 (2.0)
	Physicians	9 (0.8)	0 (0.0)	2 (0.8)	7 (0.8)
	Office workers	21 (1.8)	3 (4.1)	4 (1.7)	14 (1.7)
	Subtotal	455 (39.4)	29 (39.7)	89 (37.5)	337 (40.0)
Other subjects*	Animals	7 (0.6)	0 (0.0)	0 (0.0)	7 (0.8)
	Environment	1 (0.1)	0 (0.0)	0 (0.0)	1 (0.1)
	Organizations	7 (0.6)	0 (0.0)	4 (1.7)	3 (0.3)
	Subtotal	15 (1.3)	0 (0.0)	4 (1.7)	11 (1.3)
Total		1153	73 (6.3)	237 (20.6)	843 (73.1)

*Duplicate response.

Table 4. Type of Data Collection Settings

(N = 1,089)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1980'	1990'	>2000
			n (%)	n (%)	n (%)
Hospital	Hospitalization	210 (19.3)	20 (33.3)	46 (20.4)	144 (17.9)
	Outpatient department	167 (15.3)	7 (11.7)	50 (22.2)	110 (13.7)
	Others	74 (6.8)	3 (10.0)	13 (9.8)	58 (11.7)
	Hospitalization & outpatient department	48 (4.4)	3 (5.0)	9 (4.0)	36 (4.5)
	Subtotal	499 (45.8)	33 (55.0)	118 (52.4)	348 (43.3)
Community	Home	95 (8.7)	5 (8.3)	26 (11.6)	64 (8.0)
	Public health center	37 (3.4)	1 (1.7)	3 (1.3)	33 (4.1)
	Community welfare center	14 (1.3)	0 (0.0)	2 (0.9)	12 (1.5)
	Senior community center	10 (0.9)	0 (0.0)	2 (0.9)	8 (1.0)
	Work place	23 (2.1)	1 (1.7)	5 (2.2)	17 (2.1)
	Institution	53 (4.9)	0 (0.0)	6 (2.7)	47 (5.8)
	Others	70 (6.4)	4 (6.7)	11 (4.9)	55 (6.8)
	Subtotal	302 (27.8)	11 (18.3)	55 (24.5)	236 (27.8)
School	Elementary school	21 (1.9)	1 (1.7)	3 (1.3)	17 (2.1)
	Middle school	11 (1.0)	0 (0.0)	1 (0.4)	10 (1.2)
	High school	33 (3.0)	1 (1.7)	8 (3.6)	24 (3.0)
	College	44 (4.0)	1 (1.7)	4 (1.8)	39 (4.9)
	Others	21 (1.9)	0 (0.0)	4 (1.8)	17 (2.1)
	Subtotal	130 (11.9)	3 (5.0)	20 (8.9)	107 (13.3)
Others	Subtotal	140 (12.9)	9 (15.0)	30 (13.3)	102 (12.7)
Not mentioned		17 (1.6)	4 (6.7)	2 (0.9)	11 (1.4)
Total		1,089	60	225	804

5.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론적 틀 사용 여부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론적 틀 사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론적 틀을 사용한 경우 기존이론을 사용한 논문이 403편(37.0%)로 가장 많았으며, 1980년대 5편(8.3%)에서 2000년 이후

에 292편(36.3%)로 증가되었다.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틀을 사용한 경우 274편(25.2%)으로 1980년대 26편(43.3%)에서 1990년대 31편(13.8%)로 감소되었다가 2000년 이후 217편(27.0%)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만 이론적 틀을 사용한 경우가 66편(6.0%)으로 1980년대 1편(1.7%)에서 2000년 이후 53편

(6.6%)로 증가되었다. 이론적 틀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은 346편(31.8%)으로, 1980년 28편(46.7%)에서 2000년 이후 242편(30.1%)로 감소되었다.

6.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이론의 수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이론의 수는 이론적 틀을 사용한 논문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만 이론을 사용한 경우와 기존 이론을 사용한 경우인 461편에서만 살펴보았다. 이론 1개만을 사용한 논문은 368편(79.8%), 2개 사용한 논문 72편(15.6%), 3개 이상 사용한 논문은 21편(4.6%)으로 나타났다. 연대별 분포는 2000년 이후부터 이론 1개를 사용한 논문이 272편(80.7%)로 증가되고, 2개 사용한 논문은 1990년대부터 증가되어 2000년 55편(16.3%)이었다(Table 5).

7.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론의 적용 유형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이론의 적용 유형도 이론적 틀을 사용한 경우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만 이론을 사용한 경우와 기존 이론을 사용한 458편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논문에서 사용한 이론의 적용 유형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이론 전체를 그대로 사용한 논문이 140편(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론의 일부에 연구자가 개념을 추가한 논문 120편(26.2%), 이론

전체에 연구자가 개념을 추가한 논문 107편(23.4%), 이론의 일부를 사용한 논문 91편(19.9%) 순이었다. 연대별 이론의 적용유형은 이론 전체에 연구자가 개념을 추가한 논문이 1990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론의 일부에 연구자가 개념을 추가한 논문이 1980년 1편(16.7%)에서 2000년 이후 91편(27.2%)로 증가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박사학위논문 중 양적 논문의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 방법, 논문의 이론적 틀 사용 여부 및 논문에 사용한 이론의 적용 유형과 이론의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간호학문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 의료 분야에서 근거기반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사학위논문 중 양적 연구를 분석하여 간호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박사학위과정 및 학위논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이 출판된 이래 약 29년간의 학위논문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양적 연구가 총 1,089편이었다. 학위논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간호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발맞추어 국내의 사회적, 학문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간호대학 교수 요원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입학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거 중심의 간호 실무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는 등 간호 분야에서 연구

Table 5. Framework, Number & Type of Theory used in Doctoral Dissertations (N=1,089)

Variables	Classifications	n (%)	1980'	1990'	> 2000
			n (%)	n (%)	n (%)
Use of theoretical framework	No	346 (31.8)	28 (46.7)	76 (33.8)	242 (30.1)
	Framework derived from other studies by researcher	274 (25.2)	26 (43.3)	31 (13.8)	217 (27.0)
	Theory for only program development	66 (6.0)	1 (1.7)	12 (5.3)	53 (6.6)
	Original theory	403 (37.0)	5 (8.3)	106 (47.1)	292 (36.3)
	Total	1089	60	225	804
Number of theory used in doctoral dissertations	One	368 (79.8)	4 (66.7)	92 (78.0)	272 (80.7)
	Two	72 (15.6)	0 (0.0)	17 (14.4)	55 (16.3)
	More than three	21 (4.6)	2 (33.3)	9 (7.6)	10 (3.0)
	Total	461	6	118	337
Type of theory application	Use of original whole theory	140 (30.5)	2 (33.3)	35 (29.9)	103 (30.7)
	Use of parts of theory	91 (19.9)	3 (50.0)	27 (23.1)	61 (18.2)
	Concept addition in original whole theory by researcher	107 (23.4)	0 (0.0)	27 (23.1)	80 (23.9)
	Some of concept addition in parts of theory by researcher	120 (26.2)	1 (16.7)	28 (23.9)	91 (27.2)
	Total	458	6	117	335

인력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Choe et al., 2009; Kim et al., 2004; Shin et al., 2008).

본 연구 대상인 박사학위논문들의 연구유형은 실험연구가 51.5%였으며, 그 다음이 조사 연구 38.8%, 도구개발연구 5.0%, 기타 4.7%이었다. 연대별 분석에서도 198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던 조사 연구 방법에서 점차 실험연구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Choe et al., 2009; Kim, Lee, Lee, & Lee, 1994; Kim et al., 2004; Shin et al., 2008)에서와 같이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이 대상자에게 가장 질 좋은 간호 실무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져 이를 반영하고 있고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연구유형별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에서는 유사 실험연구가 9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사 연구에서는 모형구축연구가 4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험연구에서 유사 실험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Shin 등(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간호학 분야의 실험연구에서는 무작위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 실험연구를 수행하기 힘들어서 유사 실험연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 연구에서는 모형구축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형구축연구는 문헌을 바탕으로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 자료를 통해 모형을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 건강 및 간호의 행위, 반응, 인식을 설명하거나 간호 및 건강 관련 내용, 행위 및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간호에서 관심이 있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 지식체의 개발 및 확대를 해 나가기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Choe et al., 2009).

본 연구 결과에서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대별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료 수집 장소는 전체적으로 병원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학교의 순이었으나, 시대별로 분석한 결과 병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료 수집 비율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Kim과 Lee (1995) 연구와 Shin 등(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주요 연구 대상은 환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학적인 질병이 없는 일반인까지 확대되어 건강증진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 장소 역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회로도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간호의 영역을 확장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간호학 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지식체를 축적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1980년대에는 이론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이 많았으

나 점차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논문이 증가되었으며,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틀을 사용한 경우 보다 기존이론을 사용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Choe 등(2009)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40%에 불과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이 68.2%로 나타나 최근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과학적 지식체의 구축을 위해 근간이 되는 이론과 경험적 연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 중 기존이론을 사용한 논문은 37%에 불과하였으며 이론들의 대부분은 간호이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간호이론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간호이론의 개발 및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이론의 수와 이론의 적용 유형은 논문의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논문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만 이론을 사용한 경우와 기존 이론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이론은 대부분이 이론 1개만을 사용하였고(79.8%), 이론의 적용 유형은 이론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론의 일부에 연구자가 개념을 추가한 논문, 이론 전체에 연구자가 개념을 추가한 논문으로 다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이론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론의 일부 또는 전체에 연구자의 연구방향에 적합한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하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사용한 이론들이 간호학자에 의해 나온 간호학의 이론이기 보다는 대부분 다양한 학문에서의 이론을 간호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다. 논문의 이론적 기틀은 연구자의 철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연구개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통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이론의 일부 또는 전체에 포함시켜 새로운 생각과 통찰력을 관심현상의 본질로 표현하도록 구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간호학의 고유한 지식체를 발견하고 근거 중심의 간호 실무를 제공하기 위해 이론에 대한 검증과 적용을 제대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체의 근간이 되는 박사학위 논문의 준비과정에서 연구자 스스로 철학적 인식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Shin et al., 2008), 이론을 재구성하고 타당화시켜서 확대해 나갈수 있는 실용적 지식체 확립과 방법론 탐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2월까지 간호학 박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된 22개 대학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수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학위논문의 탐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논문의 내용과 경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었다. 연구 대상은 2010년 2월까

지 발표된 박사학위논문 중에서 질적 연구, 논문의 부재, 한문 또는 영어로 기술된 논문, 메타분석, Q 방법론, 보건학, 교육학을 제외한 양적 논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사학위논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논문의 이론적 틀 사용 여부와 논문에 사용한 이론의 적용 유형 및 이론의 수를 분류해 보았다.

박사학위논문의 연구유형에서 실험연구는 1990년대부터 증가되어 51.5%로 가장 많았고, 조사 연구는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대상은 환자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시대별로 증가되었으며, 환자 또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되었다. 자료 수집 장소는 병원, 지역사회, 학교의 순이었으나 병원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 지역사회에서의 자료 수집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론적 틀을 사용한 논문이 1990년대부터 증가되었고, 기존이론에 연구자의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논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박사학위논문 분석 기준은 선행 문헌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측정이 되었으므로 약간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의 박사학위논문의 전수 현황을 파악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현주소와 미래의 방향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박사학위논문 분석기준은 논문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논문의 질적인 평가 방안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고유한 간호학의 지식체를 개발하고 근거 중심 실무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과 적용을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Choe, M. A., Hong, K. J., Han, K. J., Park, Y. S., Park, S. A., Han, Y. S., et al. (2009). Trends of doctoral dissertations of one college of nursing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32-43.
- Kim, E. S., Kim, G. S., Kim, D. R., Kim, E. J., Sung, K. M., Shin, H. K., et al. (2004). Trends of nursing science inquiry in doctoral dissert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 315-323.
- Kim, H. G., & Lee, Y. S. (1996). A statistical analysis on nursing-related theses in Korea. *The Korean Nurse, 34*, 68-81.
- Kim, M. J., Lee, M. S., Lee, M. H., & Lee, W. I. (1994). 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o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4*, 96-114.
- Shin, H. S., Hyun, M. S., Ku, M. O., Cho, M. O., Kim, S. Y., Jeong, J. 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139-149.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39>
- Shin, H. S., Sung, K. M., Jeong, S. H., & Kim, D. R. (2008). Trends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nursing science: Focused on studies submitted since 200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74-82. <http://dx.doi.org/10.4040/jkan.2008.38.1.74>
- Spear, H. J. (2007). Nursing theory and knowledge development: A descriptive review of doctoral dissertations, 2000-2004. *Advances in Nursing Science, 30*, E1-E14.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S.,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1013-1019.